

【문 4】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보 기>

서술자는 자신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거나, 인물의 시각에서 인물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하여 서술한다. 즉 ‘서술’은 서술자가 담당하지만 ‘시각’은 서술자의 것일 수도, 인물의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문 5】 ㉣에 부합하는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네.
② 공든 탑이 무너져 버렸구나.
③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지.
④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6~문9】

(가)

사내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무언지 입을 우물거리고 있었다. 안이 손가락으로 내 무릎을 찌르며 우리는 꺼지는 게 어떻겠느냐는 눈짓을 보냈다. 나 역시 동감이었지만 그때 그 사내가 다시 고개를 들고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놀리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내와는 재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친정이 대구 근처에 있다는 얘기만 했지 한 번도 친정과는 내왕이 없었습니다. ㉠난 처갓집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그는 다시 고개를 떨구고 입을 우물거렸다.

㉢“뭘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는 내 말을 못 들은 것 같았다. 그러나 한참 후에 다시 고개를 들고 마치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난 서적 외판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돈 사천 원을 주더군요. 난 두 분을 만나기 얼마 전까지도 세브란스 병원 울타리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누워 있을 시체실이 있는 건물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타리 곁에 앉아서 병원의 큰 굴뚝에서 나오는 희끄무레한 연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해부 실습하느라고 톱으로 머리를 가르고 칼로 배를 찢고 한단데 정말 그러겠지요?”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환이 다 쿠양과 양파가 담긴 접시를 갖다 놓고 나갔다.

(나)

“기분 나쁜 애길 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라도 얘기하지 않고서는 건딜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의논해 보고 싶은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저녁에 다 써버리고 싶은데요.”

“쓰십시오.” 안이 얼른 대답했다.

“이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함께 있어 주십시오.”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승낙했다.

“멋있게 한번 써 봅시다.”라고 사내는 우리와 만난 후 처음으로 웃으면서, ㉦그러나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다)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다. 방금 우리가 나온 중국집 곁에 양품점의 쇼윈도가 있었다. 사내가 그쪽을 가리키며 우리를 끌어 당겼다. 우리는 양품점 안으로 들어갔다.

“넥타이를 하나 골라 가져. 내 아내가 사주는 거야.” 사내가 호통을 쳤다. 우리는 알록달록한 넥타이를 하나씩 들었고, 돈은 육백 원이 없어져 버렸다. 우리는 양품점에서 나왔다. “어디로 갈까?”라고 사내가 말했다. 갈 데는 계속해서 없었다.

(라)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화재가 난 곳에 도착했다. 삼십 원이 없어졌다. 화재가 난 곳은 아래층인 페인트 상점이었는데 지금은 미용 학원 이층에서 불길의 창으로부터 뿜어 나오고 있었다. 경찰들의 호각 소리, 소방차들의 사이렌 소리, 불길 속에서 나는 탁탁 소리, 물줄기가 건물의 벽에 부딪쳐서 나는 소리. 그러나 사람들의 소리는 아무것도 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불빛에 비쳐 무안당한 사람처럼 붉은 얼굴로 정물처럼 서 있었다.

우리는 발밑에 굴러 있는 페인트 통을 하나씩 궁둥이 밑에 깔고 웅크리고 앉아서 불구경을 했다. 나는 불이 좀더 오래 타기를 바랐다. 미용 학원이라는 간판에 불이 붙고 있었다. ‘원’자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김 형, 우리 얘기나 합시다.”하고 안이 말했다. “화재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일 아침 신문에서 볼 것을 오늘 밤에 미리 봤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저 화재는 김 형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이 아저씨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화재엔 흥미가 없습니다. 김 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

【문 6】 위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면 의식의 서술을 통해 주인공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② 서술자를 작중 인물로 설정하여 사건의 현장감을 부각하고 있다.
③ 등장인물이 주인공의 행동과 사건을 관찰하여 신빙성을 획득하고 있다.
④ 장면의 잦은 전환을 통해 인물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문 7】 <보기>가 들어갈 가장 적절한 곳은?

<보 기>

중국집에서 거리로 나왔을 때는 우리는 모두 취해 있었고, 돈은 천 원이 없어졌고, 사내는 한쪽 눈으로는 울고 다른 쪽 눈으로는 웃고 있었고, 안은 도망갈 궁리를 하기에 도 지쳐 버렸다고 내게 말하고 있었고, 나는 “악센트 짙은 문제를 모두 틀려 버렸단 말야, 악센트 말야”라고 중얼거리고 있었고, 거리는 영화에서 본 식민지의 거리처럼 좁고 한산했고, 그러나 여전히 소주 광고는 부지런히, 약 광고는 게으름을 피우며 반짝이고 있었고, 전봇대의 아가씨는 ‘그저 그래요’라고 웃고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갈까?”하고 아저씨가 말했다. “어디로 갈까?”안이 말하고, “어디로 갈까?”라고 나도 그들의 말을 흉내 냈다.

- ① (가)와 (나) 사이 ② (나)와 (다) 사이
③ (다)와 (라) 사이 ④ (라) 뒤

【문 8】 <보기>에서 ㉠~㉣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한 것으로 묶은 것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문11~문13]

<보 기>

- ㉠. 사내가 ㉡를 한 이유는 ㉢ 때문이다.
 ㉡. 나는 ㉣의 상황을 알지 못해 ㉢로 되묻고 있다.
 ㉢. 사내는 ㉣의 결과로 ㉢를 갖게 되었다.
 ㉣. 사내의 ㉢는 ㉣를 요청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사내가 ㉢처럼 반응한 것은 ㉣가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

【문 9】 밑줄을 감싼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알록달록 넥타이를 하나씩 사주는 사내의 모습에서 냉혹해진 사회 속에서 인간성 회복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군.
 ②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는 세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삶의 목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도시인의 비애가 드러나고 있군.
 ③ 불이 좀더 오래 타기를 바라는 나의 태도에서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이기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군.
 ④ 화제가 본인과 상관없어 화재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안의 말에서 연대감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군.

【문10】 <보기1>을 참고할 때, <보기2>에서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는 것끼리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1>

- 제 30 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나는 것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

<보 기 2>

- ㉠ 대+있 ㉡ 아래+마을 ㉢ 머리+말
 ㉣ 코+병 ㉤ 위+층 ㉥ 개(個)+수(數)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고전은 왜 읽는가? 고전 속에는 오랜 세월을 견뎌 온 지혜가 살아 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고전은 시간을 타지 않는다. 아주 오래전에 쓰인 고전이 지금도 힘이 있는 것은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변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 성장하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 자기 성취를 위해 애쓰고, 좋은 배우자를 얻어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좋은 집과 많은 돈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 사람이 태어나 이 세상에 왔다 간 보람을 어디서 찾을까?

연암 박지원 선생의 글 두 편에서 그 대답을 찾아본다. 먼저 ‘창애에게 답하다’[답창애(答蒼厓)]란 편지글에는 문득 눈이 뜨인, 앞을 못 보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 수십 년 동안 앞을 못 보며 살던 사람이 길 가던 도중에 갑자기 사물을 또렷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늘 꿈꾸던 민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 앞을 못 보는 삶에 길들여져 있던 그는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 엄청난 정보를 도저히 처리할 능력이 없었다. 그는 갑자기 자기 집마저 찾지 못하는 바보가 되고 말았다. 답답하여 길에서 울며 서 있는 그에게 화담 선생은 도로 눈을 감고 지팡이에겐 길을 물으라는 ㉠쳐방을 내려 준다.

또 ‘하룻밤에 아홉 번 강물을 건넌 이야기’[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에서는 황하를 건널 때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이유를 설명했다. 거센 물결의 소용돌이를 직접 보면 그만 현기증이 나서 물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물결 소리는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 쓸 겨를도 없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겠는가? 하지만 한밤중에 강물을 건널 때에는 온통 압도해 오는 물소리 때문에 모두들 공포에 덜덜 떨었다. 연암은 결국 눈과 귀는 전혀 믿을 것이 못 되고, 마음을 텅 비워 바깥 사물에 ㉡현혹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결론을 맺는다.

이 두 이야기는 사실은 복잡한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이다. 사람들은 날마다 수없이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 처리한다. 그런데 정보의 양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그 속에 진짜와 가짜가 뒤섞이게 되면, 갑자기 앞을 보게 된 그 사람처럼 제집조차 못 찾거나,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는 것이 도리어 강물에 휩쓸리고 마는 결과를 낳는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은 더없이 기쁘고 좋은 일이다. 위기 상황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 하지만 그로 인해 자기 집을 잃고 미아가 되거나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차라리 눈과 귀를 믿지 않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한편, 길 가다가 문득 눈이 뜨인 그 사람으로서는 계속 눈을 감고 지팡이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한번 뜨인 눈을 다시 감을 수는 없다. 그의 문제는 길 가는 도중에 눈을 뜨는 바람에 제집을 찾지 못하게 된 데서 생겼다. 그러니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집을 찾는 것이 먼저다. 그다음에 눈을 똑바로 뜨고 제집 대문 색깔과 골목의 위치를 잘 확인하고 나오면 된다. 그때부터는 지팡이가 전혀 필요 없다.

그 사람에게 눈을 도로 감으라는 것은 앞을 못 보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다.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이다. 강물을 건널 때 물결을 보지 않으려고 하늘을 우러르고, 밤중에 강물 소리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변화는 그다음에 온다. 길은 눈먼 사람만 잃고 헤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두 눈을 멀쩡히 뜨고도 날마다 길을 잃고 헤맨다. 운전자들은 차에 내비게이션을 달고도 길을 놓쳐 번번이 당황한다. 새로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여전히 혼란스럽다. 물결은 어디서나 밀려오고, 소음은 항상 마음을 어지럽힌다.

고전은 ‘창애에게 답하다’에 나오는 그 지팡이와 같다. 갑자기 길을 잃고 헤맬 때 길을 알려 준다. 지팡이가 있으면 길에서 계속 울며 서 있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일단 눈을 뜨고 나면 지팡이의 ㉠존재를 까맣게 잊는다. 그러고는 집을 못 찾겠다며 길에서 운다. 고전은 그러한 사람에게 길을 알려 주는 든든한 지팡이다. 뱃길을 잃고 캄캄한 밤바다를 헤매는 배에게 멀리서 방향을 일러주는 등딿불이다.

사물이 익숙해지면 지팡이는 필요 없다. 환한 대낮에는 등딿불이 없어도 괜찮다. 하지만 막 새롭게 눈을 뜬 사람에게는 지팡이가, 뱃길을 벗어나 밤바다를 헤매는 배에게는 등딿불의 도움이 절실하다. 우리는 길을 놓칠 때마다 고전을 통해 문제의 중심 위에 나를 다시 세워야 한다. 그러자면 긴 호흡으로 여러 분야의 고전들을 꾸준히 ㉡설했는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별 문제가 없어도 문제는 늘 다시 생겨난다. 밤중에 길 잃는 배는 항상 있게 마련이라 등대는 밤마다 불을 밝힌다. 평소 눈길조차 주지 않아도 고전은 늘 우리 곁을 지키고 있다. 삶이 문득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 고전의 힘은 눈먼 사람의 지팡이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생각의 힘을 든든하게 길러 놓지 않으면 안 된다. 다양한 고전을 늘 가까이 두고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전 속에서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타개할 깨달음을 얻게 될 때의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고전에 대한 든든한 신뢰를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고전을 늘 가까이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 정민, ‘고전으로 무너진 중심을 다시 세워라’ -

【문11】 다음 중 ㉠~㉢의 문맥적 의미와 다르게 사용된 것은?

- 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처방이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 ② 그녀는 쇼핑 호스트의 말에 현혹되어 필요도 없는 물건을 한가득 샀다.
- ③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녀는 이제 남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 ④ 그는 우선 철학서 설했을 통해 정의에 대해 알고자 하였다.

【문12】 밑줄이 전체로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아는 게 병, 모르는 게 약이다.
- ② 일의 처리는 선후를 가려야 한다.
- ③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 ④ 인간은 낯선 환경과 마주치면 쉽게 혼란에 빠진다.

【문13】 밑글의 주된 전개 방식으로 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용을 점층적으로 심화시켜 예상 밖의 주제를 도출하고 있다.
- ② 예시와 비유를 이용해 핵심 논지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 ③ 대조적인 내용을 병렬적으로 배열하여 주제 전달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 ④ 두 개의 핵심 사건을 비교, 대조하여 독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14~문17]

최근 몇십 년간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신고전파 경제학은 특유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시장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태초에 시장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며, 국가의 개입은 시장의 결함이 극도로 심화된 이후에야 나타나야 할 ㉠인위적 대체물로 본다.

(가) 태초에 시장은 없었다는 것이 진실이다. 경제 사학자들에 따르면, 시장 체제는 인류의 경제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고, 발생 단계부터 거의 항상 국가의 개입에 의존해 왔다.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는 더욱 그랬다. 폴라니는 그의 고전적 저작인 “대전환”을 통해 ‘자연 발생적으로’ 시장 경제가 나타난 것으로 흔히 간주되는 영국에서조차 시장의 발생에 정부가 결정적 역할을 해냈음을 보여 주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자유 시장으로 가는 길은 정부가 꾸준히 개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작되고 유지되었다. 애덤 스미스의 ㉡‘단순하고 자연적인 자유’의 개념을 인간 사회에 실현하는 일은 매우 복잡한 일이었다. 토지의 사유를 제도화한 인클로저법들의 조항은 얼마나 복잡하였던가. 시장 개혁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관료적 통제가 필요하였던가?”

미국에서도 초기 산업화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소유권의 확립, 주요 사회 간접 시설의 건설, 농업 연구에 대한 자금 공급 등을 통한 정부의 개입이었다.

(나) 미국은 ㉢‘유치산업 보호’라는 아이디어의 발생지였으며,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 이전의 100년 동안 산업 보호 장벽이 가장 견고하였던 나라였다.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 가운데, 정부가 경제 발전에 강력하게 개입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물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사회주의 혁명에 맞서 복지 국가 체계를 수립한 비스마르크의 독일, 전후(戰後) 산업 복구 정책을 펼 프랑스, 국가적으로 연구 개발을 지원한 스웨덴, 공기업 부문을 통해 제조업의 발전을 이룬 오스트리아, 국가의 주도로 압축 성장을 이룬 한국 등의 동아시아 국가가 그것이다. 정부의 개입 형태는 이렇듯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국가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선진국은 사실상 정부의 강도 높은 개입이라는 ㉣‘비(非)자연적 방법’을 통하여 발전해 왔다. (다) 시장을 인위적 개입이

없는 자연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실제 사실이 아닌 희망 사항에 기반을 둔 것이다.

시장 제도가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지의 여부는 한 나라의 경제 정책 설계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테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로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였던 많은 나라들은 한동안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것은 ‘잘 작동하는’ 정부 없이 ‘잘 작동하는’ 시장 경제를 건설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 준다. 신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이 믿는 대로 시장이 ‘자연스럽게’ 진화한다면, 이 옛 공산 국가들은 진작 그 같은 혼란에서 빠져 나왔어야만 한다. 또한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경제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라 할 것이다.

【문14】 빈칸 (가)~(다)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적은 것은?

- ① 그러므로 - 게다가 - 그러나
- ② 그리고 - 반면 - 그래서
- ③ 그러나 - 반면 - 그래서
- ④ 그러나 - 게다가 - 그러므로

【문15】 밑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이론의 형성과정을 시대순으로 제시하여 이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② 특정이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며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상반된 두 이론을 비교·분석하면서 각각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특정이론의 사회적 의의를 밝히고 종류를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문16】 밑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시장과 정부는 경제라는 수레를 움직이는 두 바퀴와 같다. 때로는 서로 잘 맞물려 수레를 잘 굴러가게 하지만, 서로 갈등을 빚으며 좌충우돌하고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정책 당국자가 정부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시장의 흐름과 상충되는 정책이 발표되면, 비록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이 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 성공하는 정책일수록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 정부의 ‘보이는 손’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오히려 거의 모든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되고,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 ① 밑글과 마찬가지로 <보기>에서는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 ② 밑글과 달리 <보기>에서는 정부의 ‘보이는 손’이 시장을 성공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 ③ 밑글과 달리 <보기>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 ④ 밑글과 마찬가지로 <보기>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17】 밑줄 친 ㉠~㉣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 ㉠ ㉠ ㉡ ㉡ ㉢ ㉢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18~문20]

(가)

가노라 삼각산(三角山)아 다시 보자 한강수(漢江水) | 야
고국산천(故國山川)을 ㅈ 너고자 ㅎ 락마네, ㄴ
시절(時節)이 하 수상(殊賞)ㅎ 니 올동말동 ㅎ 여라

- 김상헌 -

(나)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저귀 수돌저귀 ㅈ
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ㅈ 닭 ㅎ바가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ㅎ 제몫 여다져 불가 ㅎ 노라

- 사설시조, 작가 미상 -

(다)

두터비 꼬리를 물고 두힘 우회 치디라 안자
것년 산(山) ㅈ 락보니 백송골(白松骨)이 ㅈ ㅈ기거니 ㅈ 가슴
이 금죽ㅎ역 풀덕 ㅈ워 내디다갓 두힘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ㄴ넨 ㅈ넨식만정 에헐질 변ㅎ 패라

- 사설시조, 작가 미상 -

【문18】 (나)의 표현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웃음을 통해 비애와 고통을 극복하려는 우리나라 평민 문학의 한 특징이 엿보인다.
- ② 초·중·종장이 모두 율격을 무시한 형태의 시조로, 평시조에서 사설시조로 나아가는 작품의 성향을 나타내 주고 있다.
- ③ 구체적 생활 언어와 친근한 일상적 사물을 수다스럽게 열거함으로써 괴로움을 강조하는 수법은 반어적으로 웃음을 유발한다.
- ④ 특히 중장에서 여러 종류의 문과 문고리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화자가 처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문19】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휘면에서는 ‘백송골, 두힘, 금죽하여, 풀덕 뛰어, 잣바지 거고, 모쳐라’ 등 서민적인 일상어를 구사하고 있다.
- ② 자신보다 강하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꿈쩍 못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두꺼비의 모습에서 솔직하지 못한 위선을 엿볼 수 있다.
- ③ 두꺼비는 약자에게는 군림하고 강자에게는 비굴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으며, 특히 황급히 도망가려다 실수를 하고도 자기 합리화를 하는 모습에서 비판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 ④ 이 노래는 ‘과리’와 ‘두터비’, ‘백송골’의 세 계층을 통해서 권력 구조의 비리를 우회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 작품으로, 중장에서 화자를 바꾸어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문20】(가)와 <보기>의 공통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잠시 뜻을 얻었노라 까불대는 이 시운이
나의 등을 내밀어서 너를 떠나가게 하니
일로부터 여러 해를 너를 보지 못할지나
그 동안에 나는 오직 너를 위해 일하리니
나 간다고 슬퍼 마라 나의 사랑 한반도야
- 안창호, 「거국가(去國歌)」 -

- ① 도치법과 설의법을 통해 시적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대유법과 의인법을 사용하여 고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③ 대구와 대조의 방식을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불안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a-a-b-a의 반복과 과장법을 통해 화자의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문21】다음 중 어법에 어긋남이 없이 바른 문장은?

- ① 어느 때가 절망 속에 헤매이던 시절이 있었다.
- ② 그 곳엔 내노라하는 씨름꾼들이 다 모여 있었다.
- ③ 운명을 건 거사의 날, 칠월같이 어두운 밤이었다.
- ④ 이번 여름은 후텁지근한 날이 많아 건디기 어렵다.

【문22】<보기>의 ㉠~㉢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부엌 + 일 → [부엌일]
㉡ 콧 + 날 → [콘날]
㉢ 앉 + 고 → [안꼬]
㉣ 흘+ 는 → [홀른]

- ① ㉠, ㉡ : ‘맛 + 불 → [만뽕]’에서처럼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 ㉡, ㉢ : ‘있 + 니 → [인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이 있다.
- ㉢ : ‘알 + 고 → [알꼬]’에서처럼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있다.
- ④ ㉢, ㉣ : ‘뭉 + 도 → [목또]’에서처럼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23~문25】

오후 수업이 시작된 바로 뒤에 뜻밖에도 권 씨가 나를 찾아왔다. 때마침 나는 수업이 없어 교무실에서 잡담이나 하고 있는 중이어서 수위로부터 연락을 받아 곧장 학교 정문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
“바쁘실 텐데 이거 죄송합니다.”
권 씨는 애써 웃는 낯이었고 웬지 사람이 전에 없이 께수줍어 보였다. 나는 그 수줍음이 세 번째 아이의 아버지가 된 데서 오는 것일 거라고 좋은 쪽으로만 해석함으로

씨 연락을 받는 그 순간에 느낀 불길한 예감을 떨쳐 버리려 했다.

“잘됐습니까?”

“뒤늦게나마 오 선생 말씀대로 했기 망정이지 끝까지 집에서 버텼다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녀석인지 년인지 모르지만 못난 애비 혼 좀 나라고 여영 애를 맥이는군요.”

권 씨는 수줍게 웃으며 길바닥 위에도 발부리로 뚫뚫 글썽지 그림인지를 자꾸만 그렸다. 먼지가 폴폴 이는 언덕길을 터덜터덜 올라왔을 터인데도 그의 구두는 놀랄 만큼 반짝거렸다. 나를 기다리는 동안 틀림없이 바짓가랑이 뒤흘에다 양쪽 발을 번갈아 가며 문지르고 있었을 것이었다.

“십만 원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

밀도 끝도 없이 그는 이제까지의 수줍음이 싹 가시고 대신 도발적인 감정 같은 걸로 그득 채워진 얼굴을 들어 내면전에 대고 부르짖었다. 담배 한 대만 꾸자는 식으로 십만 원 소리가 허망히도 나왔다. 내가 잠시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그는 매우 사나운 기세로 말을 보태는 것이었다.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엑스레이도 찍어 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모든 게 다 정상이래요. 모체 골반두 넉넉하구요. 조기 파수도 아니구 전치태반도 아니구요. 쌍둥이는 더더욱 아니구요. 이렇게 정상적인 태도 이십사 시간이 넘도록 배가 위에 달라붙는 경우는 태아가 돌다가 탯줄을 목에 감았을 때뿐이랍니다. 제기랄, 탯줄을 목에 감았다는군요.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산모나 태어나 모두 위험하대요.”

어색하게 들린 것은 그가 ‘제기랄’이라고 씹어뱉은 그 대목뿐이었다. 평상시의 권 씨답지 않은 그 말만 빼고는 그럴 수 없이 진지한 이야기였다. 아니다. 그가 처음으로 점잖지 못한 그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 귀엔 더욱더 진지하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나는 한동안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진지함 앞에서 ‘아아, 그거 참 안됐군요.’라든가 ‘그래서 어떡하죠.’ 하는 상투적인 말로 선불리 이쪽의 감정을 전달하기엔 사실 말이지 ‘십만 원 가까이’는 내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집을 살 때 학교에다 진 빚을 아직 절반도 못 가린 처지였다. 정상 분만비 1, 2만 원 정도 라면 또 모르지만 단순히 권 씨를 도울 작정으로 나로서는 거금에 해당하는 10만 원 가까이를 또 빚진다는 건 무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내의 양해도 없이 멋대로 그런 큰일을 저질러도 괜찮을 만큼 나는 자유롭지도 못했다.

“빌려만 주신다면 무슨 짓을,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만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엄숙한 표정을 했다.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다. 그가 적시에 일깨워 주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더라면 빌려 주는 어려움에만 골몰한 나머지 빌려 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할 뻔했다.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체에 막벌이 아니면 어찌다 간간이 얻어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 일 가지고 어느 해가에 빚을 갚을 것인가.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엔 저쪽에서 감히 두말을 못하도록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다.

“병원 이름이 뭐죠?”

“원 산부인입니다.”

“지금 내 형편에 현금은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 걸어서 내가 보증을 서마고 약속할 테니까 권 선생도 다시 한 번 매달려 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야 하겠습니까.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 보세요.”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하디 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서 수술 비용을 받아 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에 벌써 알아차렸어요.”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훔치는 대신 그는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짓가랑이 뒤에다 두어 번 문질렀다. 발을 바꾸어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썰면’처럼 두툼한 입술이 선잠에서 깬 어린애같이 움썹거리더니 겨우 인사말이 나왔다. 무슨 말이 더 있을 듯싶었는데 그는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심 그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하다든가 잘 먹고 잘 살라든가 하는 말이 날아와 내 이마에 탁 늘어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봤을 때 것처럼 흠칫 놀랐을 것이다.

“오 선생, 이래 봐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그것뿐이었다. 내 호주머니에 촌지를 밀어 넣던 어느 학부형같이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는 언덕을 내려갔다.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막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딛는 한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그는 비쳤다. 산 고펡이를 돌아 그의 모습이 벌거벗은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혀진 삼륜차로 달려들어 아귀아귀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 씨처럼, 이건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암만의 빛을 지고 있음을 펴뜩 깨달았다. 전셋돈도 일종의 빛이라면 빛이었다. 왜 더 좀 일찍이 그 생각을 못 했는지 모른다.

원 산부인과에서는 만단의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에서 우격다짐으로 후려낸 가불에다 가까운 동료들 주머니를 닥치는 대로 털어 간신히 마련한 일금 10만 원을 건네자 금테의 마비츠 안경을 쓴 원장이 바로 마취사를 부르도록 간호원에게 지시했다. 원장은 내가 권 씨하고 아무 척분도 없으며 다만 그의 셋방 주인일 따름인 걸 알고는 혀를 찼다.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정말 여러 질이군요. 보증금을 마련해 오랬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는 여태껏 얼굴 한번 안

비치지 뵈니까.”

“맞습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질이듯이 아버지 노릇 하는 것도 아마 여러 질일 겁니다.”

나는 내 말이 제발 의사의 귀에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랐으나 유감스럽게도 금테 안경의 상대방은 한 차례의 너털웃음으로 그걸 간단히 농쳐 버렸다. 나는 이미 죽은 게 아닌데 싫게 사색이 완전한 권 씨 부인이 들것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가는 걸 거들었다.

- 윤홍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

【문23】 위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작품 안의 특정 인물의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를 삽입하여 시점과 주인공이 바뀌고 있다.
- ③ 작품 속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을 관찰하여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④ 작품 속 서술자의 요약적 서술을 통해 특정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문24】 위글로 보아 ‘놀랄 만큼 반짝거리는 권 씨의 구두’가 상징하는 의미로 가장 적당한 것은?

- ① 언젠가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기대와 희망
- ②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
- ③ 지식인인 자신이 우매한 민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차별 의식
- ④ 비록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자신의 자존심

【문25】 ㉠에 숨겨진 화자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람의 목숨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원장 의사에 대한 비난을 담고 있다.
- ② 목숨이 위태로운 자기 아내를 내팽개친 권 씨에 대한 비난을 담고 있다.
- ③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도 허락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 ④ 다양한 인간들의 삶이 얹혀 있는 현실에 대한 무기력증을 표현하고 있다.